

# 세계개혁의 사상적 특성과 의의

朱賢哲\*

## 目次

I. 서론	3. 원시반본사상
II. 세계개혁의 의미와 범위	IV. 세계개혁을 통한 지상천국의 세계상
III. 세계개혁의 사상적 특성	V. 세계개혁사상의 현대적 의의
1. 평화사상	VI. 결론
2. 인존사상	

## I. 서론

대순사상의 목적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경지를 일컫는다. 목적은 세부적으로 무자기-정신개혁,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세계개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무자기를 통한 정신개혁은 도통진경을 이루기 위한 정신적 경지로서 수도의 근본인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자세를 의미한다. 정신개혁이란 도에 합당한 정신의 열림을 말한다. 정신이 막혔다는 것은 인간이 사육에 사로 잡혀 기질(氣質)에 치우침으로써 본성(本性)이 훼손된 상태를 가리키고, 정신이 열렸다는 것은 본성을 회복한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신개혁은 사육에 의해 손상된 본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정신개혁이란 구체적으로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서 모순과 병폐의 상극적(相克的) 요소를 개혁하고,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향상 변화시켜 상생(相生)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정신의 회복을 의미한다.

\* 문학 박사

대순사상의 목적 중 두 번째는 인간개조를 통한 지상신선의 실현이다. 이것은 무자기를 통한 정신개벽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완성을 의미한다. 선천에서의 인간은 상극과 원한으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후천에서의 인간은 지혜가 밝혀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평화로운 선경의 세계에서 불로불사하는 지상신선이 된다. 이렇게 다가올 후천 세계의 지상신선은 선천의 인간이 개조된 새로운 인간상인 것이다.

대순사상의 목적에 나타난 세 번째는 세계개벽을 통한 지상천국의 건설이다. 이것은 정신개벽과 인간개조의 결과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될 이상적인 세계이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 글에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상천국은 세계개벽을 통해 건설된다는 취지에서, 세계개벽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과 세계개벽의 결과로 오게 될 지상천국의 세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세계개벽의 범위와 의미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세계개벽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세계개벽에서 '세계'라는 용어는 '삼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삼계는 세계(또는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천계(天界)·지계(地界)·인계(人界)를 포함한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와 삼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세계개벽, 삼계개벽 또는 천지개벽도 개벽의 대상을 중심으로 볼 때, 그 범위나 의미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천·지·인 삼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삼계는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를테면 대순사상에서 신(神)은 천계와 지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래 신은 인간이 죽어서 생성된 존재로서 인간과 그 존재방식이 다를 뿐이다. 곧 신계는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영(靈)에 의해서 건설된 세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배제하고 신을 논할 수 없으며, 또 신의 세계를 배제하고 인간세계를 논할 수 없다.

대순사상은 신과 천지만물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천지에는 신명이 가득 차 있어서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진다.<sup>1)</sup> 곧 신은 인간의 생사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의 존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인간에게 신이 떠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또 신명을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쓸 수 있는 이치와 같다.<sup>2)</sup> 신(神)은 일종의 기(氣)이다. 신과 기는 우주에 가득 차 있으며 천지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신과 기는 생물에게는 생명력을 주며, 사물에게는 사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신명은 인간의 육체를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인간의 체질과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과 인간은 둘이면서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둘인 존재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데,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도 끝난다.<sup>3)</sup> 또 교중(敎中)이나 가중(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神政)이 문란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일어난다.<sup>4)</sup> 이렇게 대순사상은 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신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신계의 일도 그대로 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입장이다. 또 신이 천계(天界)와 지계(地界)에 존재한다고 해서 인간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변에 존재하거나 함께 공존한다. 사람마다 그 닻은 바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담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는다.<sup>5)</sup>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sup>6)</sup> 신은 인간이 먹는 대로 흠향(歆饗)한다.<sup>7)</sup> 이러한 사실

- 
- 1) 「전경」, 교법 3장 2절 참조
  - 2) 「전경」, 교법 3장 4절
  - 3) 「전경」, 교법 1장 54절 참조
  - 4) 「전경」, 행록 3장 8절 참조
  - 5) 「전경」, 교법 2장 17절 참조
  - 6) 「전경」, 교법 2장 23절 참조
  - 7) 「전경」, 교법 1장 49절 참조

로 미루어 볼 때, 신은 인간과 존재방식은 다르지만 삶의 양식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이 육체를 가진 가시적(可視的)인 존재인데 비하여 신은 육체가 없는 불가시적(不可視的)인 존재이다. 그러나 신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를 유지하면서 인간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신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혁의 대상은 인간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인계(人界)뿐만 아니라 신과 신이 존재하는 천계(天界)와 지계(地界)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간사회와 마찬가지로 신과 신의 다툼과 부조화로 신 사이에 원한이 발생할 수 있고, 인간의 잘못이 신계를 혼란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는 이마두와 관련된 사실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며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자기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다. 이로부터 지하신(地下神)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간 세상에 그것을 베풀었다. 이러한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다. 그러나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 오히려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에 하소연하여 상제께서 인류를 파멸에서 구하고자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다.<sup>8)</sup> 이 내용은 삼계가 혼란하여 도가 끊기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 이것은 상제께서 이 땅에 강세(降世)하시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삼계의 혼란은 서양문명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서양문명은 신명이 베푼 은혜를 저버리고 정신보다는 물질에 치우쳐 오만에 가득 차 무분별하게 자연을 정복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인계뿐만 아니라 신명계의 질

8) 『전경』, 교운 1장 9절

서를 어지럽힌 것이다. 여기서 인계의 혼란, 신명계의 혼란이 의미하는 것은 인계와 신명계 모두가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개혁의 대상은 인간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계 전체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지상천국건설을 위해 천지공사를 통해 삼계 전체를 개혁하신 것이다. 이는 천·지·인 삼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이나 존재라도 개혁되지 않으면 완전한 개혁이 될 수 없으며, 지상천국도 건설될 수 없다. 세계개혁을 통한 지상천국건설의 관점에서 세계개혁은 곧 천지개혁 또는 삼계개혁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세계개혁, 천지개혁, 삼계개혁이 그 범위와 의미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개혁이라는 말은 사용한 것은 현실과 지상에서의 천국건설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 Ⅲ. 세계개혁의 사상적 특성

#### 1. 평화사상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인 동시에 지상의 목표는 인류의 평화를 성취하여 지상낙원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실현해야 할 평화의 길은 실로 멀고도 험난하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전 세계인이 한 가족처럼 가까워진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지금도 한편에서는 인류의 갈등·증오·전쟁이 극심해지고 있다. 어느 종교나 모두 투쟁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종교가 대립과 갈등,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도 종교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종종 분열과 대립,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상황에서 대순사상은 평화의 담당자로서 인류 평화의 가능성과 그 실현을 위해 적합한 인간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상제께서는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천도와 인도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진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

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sup>9)</sup>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을 건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대순사상은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 전체를 구제하려는 평화사상을 지향하고 있다.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동방을 순회하던 중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국에 오신 것이다.<sup>10)</sup> 대순사상이 한국에서 태동한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이 사상은 태생적으로 한국이지만 한국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한국은 대순사상의 중심지일 뿐이다. 이 사상은 인류전체를 위한 사상이므로 근본적으로 세계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대순사상의 중심지, 세계평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인류의 상극적 상황의 근본원인은 만고에 쌓인 원한이며, 이 원한을 모두 풀어야만 평화가 온다고 한다. 인류 역사상 요임금의 아들 단주(丹朱)가 원한을 품은 이후로 그 원한이 뿌리가 되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져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된 것이다.<sup>11)</sup> 그래서 인간을 파멸에서 구제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원(解冤)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인류의 평화는 원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인류가 서로 반목 투쟁하는 것도 지기가 통일되지 않아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생각과 사상의 차이로 인한 원한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간들 사이의 원한을 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 해원공사라 한다. 해원공사가 이룩되면 천지는 개혁되고 선경세계가 건설되는 것이다.<sup>12)</sup>

상제께서는 항상 평화를 주장하라고 하셨으며,<sup>13)</sup> 인류평화를 위해 해원공사도 단행하셨다. 대순사상은 본질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평화는 특히 인간평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평등이란 인격의 평등을

9)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10) 「전경」, 권지 1장 11절 참조

11) 「전경」, 공사 3장 4절 참조

12) 「전경」, 공사 3장 5절 참조

13) 「전경」, 교법 1장 53절

의미한다. 인격의 평등이란 항상 모든 인간이 상하의 구별이 없고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회생활에는 각자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 상하의 지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불평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규범이기 때문이다. 인격의 평등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다.

해원공사를 통한 인류평화와 인간평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상제께서 인간으로 현현하여 활동하시던 조선 말기의 시대적 상황은 참혹하였다. 사회제도의 모순으로 지배계급의 착취와 신분 및 남녀 차별정책이 극에 달하여 양민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박탈당했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제도의 모순을 인식하여 인간평등에 입각한 해원공사를 하셨다. 첫째로 조선시대의 반상(班常)과 적서(嫡庶)의 구별은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격 그리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차별정책이었다. 상제께서는 반상이나 적서를 구별하지 말고 누구나 다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다.<sup>14)</sup> 양반을 찾아 반상을 구별하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아서 망하는 기운이 따르기 때문에,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해야 적이 풀려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이다.<sup>15)</sup> 좋은 시대란 평등시대, 평화시대, 더 나아가 지상낙원의 시대를 의미한다. 둘째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관습으로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여성해원공사를 통해 남녀평등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조선시대 남녀 불평등의 극단적인 예로써 열녀관(烈女觀)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려 열녀가 되거나 청춘과부가 수절하여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 정식으로 개가케 하는 개혁공사를 하셨다.<sup>16)</sup> 이렇게 열녀를 강요하거나 과부의 재혼을 강제로 막는 등의 남성 위주의 사회제도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횡포는 여성으로 하여금

14) 「전경」, 교법 1장 10절 참조

15) 「전경」, 교법 1장 9절 참조

16) 「전경」, 공사 2장 17절 참조

수많은 원한을 맺게 했다. 상제께서는 인간평등에 입각한 해원공사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셨다. 이로써 후천에서는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수도(修道) 여하에 따라 그 공덕이 따르게 되어 예로부터 내려오던 남존여비의 관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sup>17)</sup>

평화가 인류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인격의 평등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 종교와 사상의 통일과 조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종교와 사상의 갈등과 대립은 주로 민족중심주의에서 기인한다. 자기 민족과 문화만 우월하고 다른 민족과 문화는 열등하다는 차별에서 종교와 사상의 갈등과 대립은 심화된다. 민족은 전 인류의 구성원이라는 자각 속에서 인류 전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류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대순사상은 종교와 사상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인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사상적 갈등은 첫째, 지기(地氣)가 통일(統一)되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전경』에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투쟁하느니라”<sup>18)</sup>고 했다.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여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開闢)되고 선경(仙境)이 세워진다.<sup>19)</sup> 둘째, 사상적 갈등은 자기 민족 고유의 문화를 주장하고 다른 민족에게 강요함으로써 발생한다. 『전경』에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sup>20)</sup>고 하였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모든 도통신(道通神)과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썩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셨다.<sup>21)</sup> 이렇게 각 민족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한 문명은 후천 문명의 기초가 된다.<sup>22)</sup> 또 상제께서는 세계 각 민족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던 선도(仙道)

17) 『전경』, 교법 1장 68절 참조

18) 『전경』, 공사 3장 5절

19) 『전경』, 공사 3장 5절 참조

20) 『전경』, 교법 3장 23절

21) 『전경』, 예시 12절 참조



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에 최 수운(崔水雲), 진묵(震默), 주회암(朱晦庵), 이마두(利瑪竇)를 각각종장(宗長)으로 임명하여,<sup>23)</sup> 종교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인류평화의 길을 터놓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평화사상은 일반적으로 평화의 실현이 인간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천·지·인 삼계의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2. 인존사상

인존사상(人尊思想)은 서양에서 일어난 휴머니즘(Humanism)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휴머니즘은 15-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에 전파된 사상으로서 우리말로 인간주의, 인문주의(人文主義), 인본주의(人本主義)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주의는 ‘인간다운 것의 실재’를 강조하며, 개성의 존중과 현세의 가치를 의식하는 데에 근거한 사상이다. 따라서 인간주의의 과제는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자기발견, 종교적 제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온갖 반인간주의적(反人間主義的) 전통과 인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되찾아 인간의 인격과 위치를 밝히는 일이다.<sup>24)</sup> 인간주의는 기독교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 기독교 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기치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여기에서 존엄(尊嚴)이라는 말은 높고 엄숙하고 거룩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고귀함과 고결함, 품위, 긍지, 권위, 온정, 순결한 사랑, 영적 사람, 아름다움의 가치 추구 등과 관련시켜 뜻하는 말이라고 하겠다. 또 인간이 존엄하다는 말은 인간은 다른 생물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우수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내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성을 가지고

22) 「전경」, 교법 3장 23절 참조

23) 「전경」, 교운 1장 65절 참조

24)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敎文社, 1987), 149쪽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sup>25)</sup> 이런 인간 존엄성의 의미는 인간이 높고 엄숙하고 거룩하며 고결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모든 개별적 인간 하나 하나가 다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즉, 사람은 누구나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이것이 인간주의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시각이다.

인간주의가 인간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했다면, 인존사상은 인간이 천·지·인 삼계(三界)의 주체가 된다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것으로, 인간이 삼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 인존사상은 우주질서의 재편을 통해 인간가치를 재정립하고 인간의 위상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데 그 사상적 의의가 있다.

인존사상은 신인조화가 실현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인조화의 필연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전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신은 사람이 뒤에 없으면 의탁하여 기댈 곳이 없으며, 사람은 신이 앞에 없으면 이끌어 줄 곳이 없다. 신과 인간이 화합하여 만사가 이루어지며, 신과 인간이 합하여 백 가지의 공이 이루어진다. 신명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은 신명을 기다리니, 음과 양이 서로 합하고 신과 인간이 서로 통한 이후에 하늘의 도가 이루어지고 땅의 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의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며,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고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sup>27)</sup> 신과 인간은 음과 양의 관계로서 신은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인간은 신이 존재함으로써 그 가치를 지니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과 인간의 결합도 음양합덕의 원리에 따라야만 조화와 상생을 이룰 수 있다. 선천세계에서는 음과 양의 부조화, 신과 인간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세상은 원한으로 가득 차고 인간은 상극의 참혹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다. 신과 인간의 조화는 천지만물을 상생(相生)으로 화합시켜주며, 만사(萬事)를 이루게 해 주는 원동력이다. 이것이 지상천국의 실현을 위해 신인조화가 필연

25) 秦教勳, 『哲學的 人間學 研究(Ⅱ)』 (서울: 經文社, 1994), 12쪽

26) 이석호, 『인간의 이해』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238쪽

27) 『전경』, 교운 2장 42절

“神無人後 無托而所依 人無神前 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娛人人娛神明 陰陽相合神人相通 然後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대순사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은 인존(人尊)이다. 인존시대 이전에는 신계(神界)가 중심이 되고 신의 의지에 의해 인간의 일이 결정되었으나, 인존시대가 되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의지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고, 진리의 표상인 신까지도 인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인존시대에 신은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응(應)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전경』에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人尊時代)라”<sup>28)</sup>고 하였다. 천존(天尊)이란 하늘이라는 영역에, 지존(地尊)이란 땅이라는 영역에 신이 거처하면서 권능을 행사하고, 인간들의 숭배와 공경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숭배와 공경의 표시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이에 비해 인존(人尊)이란 신이 인간의 영역에 거처하면서 권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은 신이 머무는 거처라는 말로써, 신의 주인이 곧 인간이 된다. ‘이제는 인존시대’라고 한 것은 모든 신의 권능을 인간이 행사하는 시대라는 말이다. 인존시대에는 지금까지 인간이 숭배하였던 신이 오히려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일을 돕게 될 것이다. 인존시대에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그 인간에게 응한 신의 조화(造化)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인존이 실현되면 인간은 지혜가 밝아져 삼계를 꿰뚫어 볼 수 있고,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든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존은 도통(道通)과도 상통한다. 도통은 인간 본래의 청정(淸淨)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鍊磨)하고 자신의 기질(氣質)을 단련하여야 한다. 또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힘써 닦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를 올바로 깨달아 환하게 도에 통하게 되면, 삼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는데,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인 것이다.<sup>29)</sup> 인존이란 인간의 가치가 진리로서의 신에 꼭 부합되어서 자신이

28) 『전경』, 교법 2장 5절

29) 『대순진리회요람』, 9쪽 참조

지닌 한도대로 신이 응하여 이루어지는 신인합본(神人合本)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도통(道通)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인조화가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누구나 도통이 된 경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신의 세계에서도 유·불·선의 도통신(道通神)들이 있어 이러한 신이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의 무한한 지혜를 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도 그 신이 아니면 그 자체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존이란 사람이 신과 부합되어서 갖추게 되는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세계개벽을 통한 지상천국건설의 관점에서 볼 때, 인존(人尊), 도통군자(道通君子), 지상신선(地上神仙)은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 3. 원시반본사상<sup>31)</sup>

원시(原始)는 ‘근원과 시작’을 의미하고, 반본(返本)은 ‘근원으로 돌아옴’의 의미이다. 그래서 원시반본(原始返本)이란 근원인 본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원인 본래의 상태란 인간적 측면에서는 청정무구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며, 역사적으로는 원한이 없는 상생의 시대로서 인류의 원한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단주(丹朱)이전의 요순시대(堯舜時代)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sup>32)</sup>는 상제의 말씀이 그 증거가 된다. 요순시대는 태평시대로서 이상적인 시대였다. 『전경』에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을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과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sup>33)</sup>고 하였다. 여기서 성(聖)과 웅(雄)을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하였던 시대가 요순시대임을 암시하고 있다. 마음을 성인(聖人)과 같이 하는 것이

30) 鄭大珍, 「神人調化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18쪽 참조

31) 拙稿, 「신앙체제의 유형과 형성방법에 관한 고찰」, 『大巡思想論叢』 제 11집(大巡思想學術院, 2001), 335-341쪽 참조

32) 『전경』, 교운 1장 46절

33) 『전경』, 교법 3장 26절

성(聖)이고, 일을 영웅과 같이 하는 것이 웅(雄)이기 때문에 성(聖)과 웅(雄)을 겸하라고 한 것이다.<sup>34)</sup> 그러면 요(堯)와 순(舜)에 대해서 『상서(尙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상서』는 요(堯)의 인격과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요(堯)는 경건하고 영민하고 문아(文雅)하고 사려(思慮)가 있고 온화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지극히 공순하고 예양(禮讓)을 갖추어, 그 인품의 고명함이 사방에 미치고 그의 정성은 천지를 감동시켰다. 또 그의 공덕은 자신의 원숙하고 고상한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먼저 9족(九族)을 감화시키고 그 9족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을 교화했으며, 나아가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하였다.”<sup>35)</sup> 이것은 요(堯)임금이 지덕을 갖춘 인격자이며, 인간관계에 있어 친화력과 감화력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 그가 수신제가(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룬 치적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요(堯)는 몸소 사람들의 의표가 되어 백성을 감화시키고 천하를 교화한 덕치주의의 선행자이며, 천시(天時)·지리(地利)·인사(人事)를 조화시켜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농경을 영위케 한 인문세계의 개척자이다. 또 그는 천하의 공도에 따라 위민(爲民)·보민(保民)·양민(養民)에 힘써 치자(治者)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천하는 천하에서 가장 현능(賢能)한 자에게 맡겨 다스려야 한다는 치도(治道)의 이상을 솔선해서 시행한, 중국 정치사상사의 본류를 열어 놓은 제왕 중의 제왕이다. 후에 나온 유가(儒家)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인격의 승화자로 요(堯)를 꼽는 데는, 그가 현세에서 진실로 인간 중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sup>36)</sup>

요(堯)를 계승한 순(舜)은 요(堯)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덕성과 능력을 겸비하였고 그 진솔하고 성실한 인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천하를 교화시켰다. 순(舜)은 대효(大孝)다. 그는 성품이 우둔한 장님인 부친과 모친이 일찍 세상을

34) 『전경』, 교운 1장 23·49절 참조

35) 『尙書』, 『虞書·堯典』

“帝堯，欽明文思安安，允恭克讓，光被四表，格于上下，克明後德，以親九族，九族既睦，平章百姓，百姓昭明，協和萬邦，黎民於變時雍”

36) 김충열, 『중국철학사 1』 (서울: 예문서원, 1996), 118쪽 참조

을 떠나자 맞이한 포악한 계모 밑에서 성장했다. 또 이복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순(舜)을 여러 번 죽이려고까지 했다. 순(舜)은 이러한 복잡한 가정에서 불우한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역경에서도 효와 우애를 다했기 때문에, 그는 효로써 세상에 알려졌고 요(堯)에게 발탁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공직에 나아가 소임을 다하며, 어른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인도했다. 즉, 그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부간에 화합하고 군주와 나라에 충성하고 장유(長幼)의 질서를 지켰다는 것은, 후에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오륜(五倫)의 전형틀을 이미 세워서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舜)이 제왕의 시험무대에 올라 있을 때, “오륜을 아름답게 하라고 명하시자 오륜이 순조롭게 시행되었다”<sup>37)</sup>고 한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자는 “순(舜)은 지혜로운 분이셨다. 순(舜)은 사람들의 일을 묻고 살펴서 여론에 귀를 기울였으며; 선(善)을 부양하고 악(惡)을 억제하셨다. 양극단을 들어서 그 중(中)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셨으니, 이것이 순(舜)의 위대한 면이다”<sup>38)</sup>라고 평했다. 따라서 중국 철학 사상사에서 볼 때 순(舜)은 인륜을 중시하는 풍조를 형성하고 도통의 단서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도통의 단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신과 치세와 온갖 변화에 대응하는 큰 근본으로서의 ‘중(中)’이라는 심법(心法)의 전수다. 이 심법(心法)이란 요(堯)에서 순(舜)으로, 순(舜)에서 다시 우(禹)에게 전해진 것이다. 순(舜)은 우(禹)에게 천하의 대권을 넘겨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의 역수(曆數)가 너에게 있어 너는 마침내 제위에 오른 것이다.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隱微)하기 때문에 오직 정일(精一)을 기해야만 그 중(中)을 잡을 수 있다. 황당무계한 말은 듣지 말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계획은 쓰지 마라. 백성은 군왕을 목숨과 같이 여기니 군왕 된 자는 모름지기 백성을 사랑할 것이요, 군왕이 잘못하면 백성은 반역할 것이니 민

37) 『尙書』, 「虞書·舜典」, “愼微五典, 五典克從”

38) 『中庸』, 제 6장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심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백성은 군왕이 없다면 어찌 통일될 수 있으며, 군왕은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 나가겠는가? 오직 자신의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가지고 너의 그 제위를 지켜 너와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하라.”<sup>39)</sup> 이 훈계 중에서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궐중(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이 16자를 주희(朱熹)는 성인들이 전수한 도통의 심법(心法)이라고 했는데, 끝부분 ‘윤집궐중(允執厥中)’ 4자는 요(堯)가 순(舜)에게 전한 것이고, 그 앞의 12자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정유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은 요(堯)의 그 말을 실행하기 위하여 보충한 실천방법으로 순(舜)이 우(禹)에게 전한 것이다.<sup>40)</sup> 이상이 순(舜)의 인격과 공덕과 업적, 그리고 그의 도통 전수에 대한 서술이다. 이것을 중국 철학 사상의 맥락에서 평가한다면, 순(舜)은 도통으로는 요(堯)의 도통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고, 내용으로는 특히 효(孝)를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인륜을 구현한 인물이며, 중국 철학의 중심 개념이 된 ‘중(中)’의 심법을 확정해서 후세에 가르침을 내린 선지선각자라 할 수 있다.<sup>41)</sup>

원시반본(原始返本)은 이렇게 천하가 태평하였던 요순시대(堯舜時代)로의 복귀(復歸)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원시반본(原始返本)은 과거·현재·미래의 직선적인 시간적 구조를 설정하여, 시간을 역행(逆行)하여 과거인 요순시대로의 회귀(回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만유(萬有)가 원시(原始)를 시점으로 출발하여 성장(生長)을 하고,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면 성숙을 위해 염장(斂藏) 운동을 하는데, 이 때 만유(萬有)는 근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자연법칙으로 설명하면, 식물은 봄과 여름에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결실을 맺고 모든 양분이 다시 뿌리로 회귀한다. 이것이 자연에서의 원시반본운동(原始返本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과정을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에 비유해 볼 때,

39) 「尚書」, 「虞書·大禹謨」

“天之歷數在汝躬 汝終陟元后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無稽之言勿聽 弗詢之謀勿庸 可愛非君 加畏非民 衆非元后何戴 后非衆罔與守邦 欽哉 慎乃有位 敬修其可願”

40) 「中庸」, 「序」 참조

41) 김충열, 같은 책, 123쪽

생장(生長)을 위한 움직임을 선천운동(先天運動)이라고 한다면 성숙을 위한 염장(斂藏)의 움직임을 후천운동(後天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천개벽기(後天開闢期)의 우주는 성숙을 위해 다시 원시(原始)의 근본으로 돌아가게(返本)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원시반본(原始返本)은 직선적인 시간적 구조에서 시간을 역행(逆行)하여 과거로 회귀(回歸)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적 구조에서 점진적(漸進的)이고 진보적(進步的)으로 발전된 회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의 봄과 새해의 봄은 똑같은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과거로 역행(逆行)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환적 흐름에 따라, 지난해의 봄보다 새해의 봄이 진보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말한다.<sup>42)</sup> 결국 원시반본(原始返本)은 과거의 이상세계로의 순환적 복귀를 의미하지만, 과거의 이상세계 그대로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완벽한 새로운 세계인 지상천국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시반본은 세계개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sup>43)</sup>

#### IV. 세계개벽을 통한 지상천국의 세계상

현대인은 과학문명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의학적으로 인간에게 각종 병마(病魔)와 질병의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 수명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천연두, 호열자 장티푸스, 흑사병 등 악성 유행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갔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촉진시켜줌으로써, 인간을 빈곤과 기아로부터 헤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인류는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렸으며, 열심히 노력하여도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흉년이라도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는 기아와 빈곤의 악순환이었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각종 자연재해(自然災害)를 막아주었다. 저수지나 댐을 건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인명손실과 농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또 과학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

42) 김정태, 「後天開闢에 따른 未來觀—原始返本의 원리를 중심으로」 (『대순회보』 제 22호, 1991년 3월 15일, 4면 참조)

43) 「전경」, 행록 4장 17절 참조



을 향상시켜주었다. 과거에는 오직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고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기계가 위험하고 힘든 일을 인간 대신 해주기 때문에 노동의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과학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상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조건이 호전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 생활 조건이 개선되었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과학의 발달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시켜 줌으로써, 인류는 과거의 전제군주 체제나 전체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인류는 여러 분야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도처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생명의 연장이 가능해졌지만 신종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독성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은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되었지만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노사간의 갈등은 그칠 줄 모르고 표출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가 되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원한이 발생되고 있다. 기아와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구 한편에서는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생활조건 개선은 고사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가들은 파당과 정권욕에 사로잡혀 민생에 대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자연재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선진국이나 후진국 가릴 것 없이 홍수와 태풍 등의 자연현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과학문명의 발전이 낳은 가장 큰 재앙은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구체적으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등을 말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작물이나 오염된 식수 및 오염된 어패류를 장기간 섭취함으로써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이산화탄소의 급증으로 지구기후체계에 영향을 주어 점점 잦아지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의 위협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각종 독성 화학물질, 합성세제, 농

약 등에서 나오는 미세유기화합물(micro organic pollutants)<sup>44)</sup>들에 의한 건강의 피해를 들 수 있고,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인체 내에 농축되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 그와 같은 질병의 예로는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일으켜 나타나는 보행곤란, 언어장애, 경련과 신장기능 장애, 칼슘대사 장애로 인한 신경통, 골연화증(骨軟化症) 등의 증세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심장질환 등이 있다.<sup>45)</sup> 특히 오존층의 파괴와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은 인류의 자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sup>46)</sup>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인류가 심혈을 기울여 과학문명을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낙원을 건설하기는커녕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순사상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서양문명이 물질에 치우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서양인 이마두와 동양의 문명신(文明神) 그리고 지하신(地下神)의 도움으로 인류는 편리한 문명화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문명은 정신보다는 물질에 치우쳐서 오히려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올바른 정신에서 모든 물질문명을 창조하고 그 문명을 선용(善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욕(私慾)에 눈이 멀어 정신보다는 물질에 치중함으로써 갖가지 재화(災禍)와 병폐(病弊)를 낳았던 것이다. 이렇게 인류가 신명들이 베푼 물질문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선용(善用)하고,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치중했다더라면 상극적(相克的)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상제께서 비록 서양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삼계를 혼란케 하여 도(道)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으나, 그 서양의 문명이기(文明利器)를 없앤 것이 아니라 창생(蒼生)의 편의를 도모코자 그대로 두었는데,<sup>47)</sup> 이것은 물질문명을 이용하는 사람이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정신을 바로 하여 사용하면 오히려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해안을 가지고 과학문명을 발전시키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했다면, 현재처럼 과학의 발전에 의한 인류의 재앙은

44) 구자건 외,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 (서울: 도서출판따남, 1993), 223쪽

45) 앞의 책, 223-224쪽

46) 이석호, 같은 책, 60-65쪽 참조

47) 『전경』, 공사 1장 35절 참조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다.

세계개벽을 통한 지상천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대순사상에서는 지상천국의 세계상을 여러 분야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첫째, 의학.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永生)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오게될 지상천국의 세계는 바로 불로불사(不老不死)하여 장생(長生)이 보장되는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는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지내는 일이 없으며,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인간은 지혜가 밝혀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인 지상신선이 된다.

둘째, 정치와 법. 이 세계는 경쟁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으로 유발되는 원한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경쟁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전쟁이 없어져 천하가 한 집안처럼 평화롭게 지내게 된다. 벼슬하는 자는 화권(化權)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한과 억울함이 없다. 또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잘 다스린다. 셋째, 과학과 경제. 과학의 무궁한 발달로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수 있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밤이라도 온 마을을 대낮과 같이 밝힐 수 있고,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신발도 금으로 된 것을 신을 수 있다. 그야말로 물질이 풍요로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지상낙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없어져 경쟁에 의한 원한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연환경. 천상과 지하의 경계가 없어져 하늘을 자유롭게 오르고 내릴 수 있다.<sup>48)</sup> 또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是非)가 있고 땅도 후박(厚薄)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水旱)의 시비가 있고, 바람도 순역(順逆)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寒暑)의 시비가 있는데,<sup>49)</sup> 상제께서는 이 모든 시비를 천지공사를 통해 없애고 인간이 살기 편안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는 수·화·풍(水火風)의 삼재(三災)가 없는 상서(祥瑞)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의 세계가 될 것이다.<sup>50)</sup>

48) 「전경」, 예시 80·81절, 공사 1장 31절 참조

49) 「전경」, 교법 3장 6절 참조

50) 「전경」, 예시 81절 참조

## V. 세계개벽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의 세계개벽사상에 나타난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 하자면, 이 사상은 한 마디로 정치적·지리적·사상적 경계를 초월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남북이 사상적 갈등에서 아직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민족분단·국토분단·국가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남북의 통일 방안에 대한 토의가 한창이지만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순사상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남북통일 방안을 암시하고 있다. 첫째, 통일은 음양합덕(陰陽合德)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체제의 모순으로 붕괴 직전의 상황에 있지만 북한에는 단점만 있고 남한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이 서로의 단점은 고쳐나가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음양합덕의 이치에 따라 결합하면,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은 해원상생(解冤相生)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남북이 서로 과거의 원한에 집착하여 극우나 극좌의 상극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서로의 원한을 풀고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해원상생의 차원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 가치와 특수성을 살리려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또 다른 원한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독일이 통일된 직후 서독인과 동독인 사이에 서로가 외국인보다도 더 증오했던 사실과, 침략적이고 민족 우월적인 게르만 민족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부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통일은 음양합덕·해원상생의 법리에 따라 민족화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지상천국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VI. 결론

대순사상은 세계개벽을 통한 지상천국건설이라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세계개벽공사는 다른 종교와 사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다. 단순히 인간세계의 병폐와 모순을 개혁하

려는 차원을 넘어 천·지·인 삼계의 상극적인 요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전 우주적인 차원이었다. 이 공사는 다른 종교나 사상을 모방하거나 계승한 것이 아니며, 과거나 현재도 유례가 없는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상제께서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쳐서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지상천국을 건설하려고 세계개벽공사를 하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개벽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으로서 평화사상·인존사상·원시반본사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 첫 번째로서 평화사상(平和思想)은 개인적 차원으로는 인간 평등, 국가적·세계적 차원으로는 종교와 사상의 조화와 통일의 기초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으로서 인간 평등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상하의 구별이 없고 능력이나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에서 역할과 능력에 따라 상하의 지위를 구별하는 것은 사회구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규범이다. 평등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인격의 평등을 말한다. 인격의 평등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서나 반상의 구별, 남녀의 차별 등은 인간 존엄성이 무시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이 유린된 인격 불평등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상제께서는 인간평등에 입각해서 해원으로써 인간 불평등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인류평화는 인격의 평등 이외에도 국가적·세계적 차원으로서 종교와 사상의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 질 때 실현될 수 있다. 대순사상은 종교와 사상의 대립과 갈등은 지기(地氣)의 분열과 민족중심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상제께서는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여 천지의 도수를 조정함으로써 지기를 통일시키고, 각 민족 사이에 나타난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시킴으로써 세계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둘째, 세계개벽은 인존사상(人尊思想)의 실현이다. 이것은 신인조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주의가 인간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했다면, 인존사상은 인간이 천·지·인 삼계(三界)의 주체가 된다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것으로, 인간이 삼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인식이다. 인존사상은 우주질서의 재편을 통해 인간가치를

재정립하고 인간의 위상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인존이 실현되면 인간은 지혜가 밝아져 삼계를 꿰뚫어 볼 수 있고,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든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된다. 또 인존이 실현된 세계에서는 모든 신의 권능을 인간이 행사하게 되어, 지금까지 인간이 숭배하였던 신이 오히려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일을 돕게 된다.

셋째, 세계개혁은 원시반본사상(原始返本思想)의 실현이다. 원시반본(原始返本)이란 천하가 태평하였던 요순시대(堯舜時代)로의 복귀(復歸)를 의미한다. 그러나 원시반본(原始返本)은 과거·현재·미래의 직선적인 시간적 구조를 설정하여, 시간을 역행(逆行)하여 과거인 요순시대로의 회귀(回歸)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적 구조에서 점진적(漸進的)이고 진보적(進步的)인 회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원시반본(原始返本)은 과거의 이상세계로의 순환적 복귀를 의미하지만, 과거의 이상세계 그대로의 모습이기보다는 완벽한 새로운 세계인 지상천국을 의미한다.

그러면 세계개혁을 통한 지상천국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인간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인간은 상제께서 단행하신 개혁공사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고 그 원리에 맞게 실천함으로써 지상천국은 실현될 수 있다. 상제께서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얻으리라”<sup>51)</sup>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상제께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편리하도록 도로를 닦아 놓으셨으니, 인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준수하여 그 도로를 따라 가기만 하면 지상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제의 세계개혁공사는 대순사상의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 원리에 합당하게 심신으로 수행하고, 신조인 사강령(안심·안신·경천·수도)과 삼요체(성·경·신)의 근본의미를 깨달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은 무자기를 근간으로 정신을 개혁하고 인간개조를 통하여 지상신선이 되고 세계개혁을 통해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대순사상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이다.

51) 「전경」, 권지 1장 11절

【참고문헌】

-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대순회보」 제 22호, 1991년 3월 15일, 4면)  
「中庸」 「尙書」  
「大巡思想論叢」 제 3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大巡思想論叢」 제 11집(大巡思想學術院, 2001)  
구자건 외,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 (서울: 도서출판따님, 1993)  
金樹澈, 「道德과 倫理」 (서울: 敎文社, 1987)  
김충열, 「중국철학사 1」 (서울: 예문서원, 1996)  
이석호, 「인간의 이해」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秦教勳, 「哲學的 人間學 研究(Ⅱ)」 (서울: 經文社, 1994)